

· 음악으로 만나는 글로벌 인문학

## 유럽 음악 페스티벌의 현장을 가다

해마다 유럽의 여름은 백 여 개가 넘는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로 뜨겁습니다.

음악 페스티벌은 그 자체로도 굉장한 즐길 거리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보다 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GDP 순위 세계 11위, 1인당 GDP는 32,046\$로  
드디어 선진국의 기준이 된다는 1인당GDP 3만불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나라 바로 위/아래에는  
전통의 강국인 스페인(31,060\$), 이탈리아(34,349\$), 일본(40,106\$)이 랭크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위의 나라들을 훌쩍 따라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본보다 더 순위가 높은 나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석유로 돈 버는 중동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 위에는 미국과 유럽의 최상위 선진국들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속도에 우리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느새 우리가 서구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어,  
이제 더는 우리 앞에 쫓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게 된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진국 사례, 남들 사례를 열심히 따라가는 방식은 지금까지만 통했던 패러다임이었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능력, 즉 **창의력이 곧 생존 경쟁력**이라는 얘기 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래와 같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창의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먼저 앞서간 서구 선진국의 창의력의 근원은 무엇이였을까?"*

*"서구 선진국에는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 **Q. 창의력의 근원은?**

A. "기술(technology)" 과 "인문학/예술" 의 결합 (=구글, 애플,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의 성공사례)

### **Q. 서구 선진국엔 있고 우리에게엔 부족한 대표적인 것은?**

A. 심의 철학. 즉 재충전의 방법론.

위 Q&A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문학, 예술, 재충전 같은 단어들은 그 동안 우리의 생업, 즉 돈 버는 일과 무관하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하는데 세계1위', '남들 따라잡는데 세계1위'임을 자부하는 우리에게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어떻게 쉬어야-재충전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얘기지만,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자'는 패러다임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음악 페스티벌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음악 페스티벌은 그 자체로도 굉장한 즐길 거리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페스티벌이 **'서구인의 삶의 철학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화'**라는 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을 알아보고,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브레겐츠 페스티벌
-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 독일 바덴바덴 페스티벌
- 이탈리아 베로나 페스티벌

**정지훈** 음악평론가, kayleigh@hanmail.net, 010-2743-4430

성악가를 꿈꾸었으나, 대학과 대학원에서 약학을 전공하였다.  
대학진학 후 꿈을 잃지 않고 수백회의 음악회와 강좌등을 섭렵하던 중,  
클래식 음악 강의나 해설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음악 안에만 갇혀 있다는  
아쉬움을 느껴 직접 음악 평론가로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를 주제로 세계 여러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으며,  
그곳에서 새롭게 얻은 영감과 자료 등을 렉처 콘서트로 구성하여  
**음악-인문학-여행이 독특하게 결합된 친근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음악 평론가/해설가로서 다수의 예술 아카데미와 연주회장에서  
다양한 강의와 콘서트를 기획/해설하고 있다.

- 예술의 전당(Music S&B), 명동대성당 마리아홀(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신세계백화점 문화홀(정지훈의 클래식 카페)등 다수의 예술강좌와 음악회 기획/해설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Executive MBA, 국민대학교 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책포럼, 외교부, 한국은행 등 초청 강의
- 월간지 <Den> 등에 음악칼럼 기고

